

제라는 용어에서 보는 것처럼 미·소 사이의 적대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양극구조 혹은 양극체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냉전체제는 미·소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의 대내외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을 의미했다.

냉전 시기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 기원과 전개과정이 미·소 대결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냉전 및 냉전체제에 관한 이상의 정의에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미·소 대결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냉전체제 아닌 독자의 하부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냉전 시기에는 매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미·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는 있었겠지만 냉전 전개과정에서 미·소 대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은 궁극적으로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소 중심의 헤게모니체제에 대항하려는 움직임 역시 미·소 냉전체제의 직접적 영향 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소 냉전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특정 지역은 세계적 차원의 미·소 냉전대결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지역적 변화가 미·소 냉전체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양 차원을 쌍방향적이고 동시적으로 고려할 때 냉전의 기원과 전개과정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시기 냉전 기원 연구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과 동구권에 대한 연구가 지역적 냉전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냉전 연구는 유럽 냉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²⁾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 시기의 냉전 연구에서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유럽의 냉전은 막을 내렸지

하기 위하여 냉전이라는 용어가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Walter Lippmann, *The Cold War: A Study in U.S. Foreign Policy*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7).
2) Akira Iriye, *The Cold War in Asia: A Historical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4), p. 6.

동북아시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金 映 浩**

- 1. 서 론
- 2. 알타협정과 동북아시아
- 3. 동북아시아 냉전 기원의 분기점
- 4. 결 론

1. 서 론

냉전(cold war)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열전(hot war)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열전만큼이나 이념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격렬하게 전개된 세계적 차원의 대결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언론인 리프만(Walter Lippmann)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¹⁾ 또한 냉전은 냉전구조 혹은 냉전체

* 이 논문은 2007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리프만은 케난이 익명으로 대소봉쇄전략을 제시한 논문을 비판하기 위하여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에 12회에 걸쳐 연재된 글들을 단행본으로 묶어내면서 그 책의 제목을 『냉전』으로 정했는데, 그 이후 학계와 언론계에서 미소가 대결하고 있는 국제정치현실을 설명

만 아시아지역의 경우 냉전은 여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 양안 문제, 지역 국가들 사이의 영토 분쟁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전형적인 냉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는 정치체제의 측면에서도 중국, 북한, 베트남이 사회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유럽과 달리 냉전체제의 한 축을 형성한 소련의 붕괴 자체가 아시아지역에서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³⁾ 냉전 종식과 관련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극명한 차이점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 냉전 기원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처럼 냉전 기원에 관한 연구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냉전 종식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평화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냉전 기원을 탈냉전 이후 공개된 공산권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⁴⁾ 동북아 냉전은 미·소 사이의 이념 대결이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고 동시에 지역적 질서가 미·소 중심의 양극적 구조로 뚜렷하게 양분되었을 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냉전이 특정한 사건에 의해 특정 시점에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냉전 발발의 분기점이 된 사건들을 찾아내고 그 사건이 앞서 정의한 냉전의 특징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미·소가 동북아시아에서 취한 정책 때문에 촉발된 것일 수도 있고 지역내 국가들 자체의 정책이 미·소의 동북아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사건에 의해 미·소와 지역 국가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미·소 사이의 냉전 대결을 격화시키는 과정과 이유로

써 설명될 때 그 사건을 냉전의 분기점이 된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미·소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었다. 냉전의 기원을 그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볼셰비키혁명 직후 서구의 개입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성립된 베르사이유 체제가 만들어 놓은 소련과 독일 사이의 벨트국가들을 소련이 모두 점령하고 독일의 일부마저 점령했을 때 미·소 사이의 이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대결의식과 소련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되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 구체적으로 미·소 냉전은 양국 사이의 협조체제를 대변했던 알타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타협정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전후 처리에 관한 양국의 합의 사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냉전의 기원은 알타협정의 내용과 그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소 정책과 역내 국가들의 대응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알타협정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전후 소련에 의한 군사적 점령 지역과 미국의 점령 지역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존재했다. 만약 양국이 전후에도 알타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점령 지역 처리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유럽에서 냉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이 자신의 이념과 체제를 각 지역에 강요하려고 했을 때 양국 사이의 대결은 촉발되었고 미·소가 블록화를 추구함으로써 유럽은 양극 구조로 재편되었다. 특히 스탈린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에는 소비에트 체제를 강요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최근 공개된 소련 문서에 기초한 냉전 연구들은 1947년 6월 5일 마셜(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의 하버드 연

3)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 12, No. 4(1999), p. 516.

4) 여기서 동북아시아는 중국, 일본, 남북한, 극동러시아, 대만, 몽고를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을 의미한다.

5) Melvyn Leffler, *The Specter of Communism* (New York: Hill & Wang, 1994), p. vii. 베르사이유체제는 공산주의가 서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소련과 독일 사이에 일종의 벨트 모양을 한 국가를 탄생시켰는데, 이 벨트국가에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이 포함되었다.

설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유럽경제부흥계획안(European Recovery Program)인 마샬 플랜(Marshall Program)이 미·소 냉전 대결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는 사실에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⁶⁾ 스탈린은 마샬플랜을 소련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로 보고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게 된다. 소련은 마샬플랜에 대한 대응으로 그 유명한 즈다노프의 양진영 이론을 제시하고 코민포름을 구성하게 된다.

동북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알타협정은 유럽과 달리 매우 유동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상황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과, 중국 내전의 전개과정 및 한반도 상황에 따라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⁷⁾ 동북아시아에서의 냉전 기원 연구는 이 지역의 특정 국가에만 국한시켜 볼 경우 외눈박이 냉전사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 냉전 기원 연구는 유럽 냉전 기원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냉전 기원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한국전쟁 기간 중에 소련을 배제한 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⁸⁾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알타협의 사항 중 일본과 관련된 부

분을 무시하고 동북아 냉전 구조를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 이전에도 중국공산혁명과 한국전쟁은 알타협정을 실질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동북아 지역 냉전 체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는 뚜렷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 글은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알타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일본 항복 직후 미·소가 어느 정도 알타협정의 정신에 따라 동북아 지역 문제를 처리해나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한반도 분단, 미국의 대일본 점령정책의 변화 등이 미·소 사이의 대결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나아가 이 글은 중국공산혁명의 성공과 함께 스탈린이 공산중국과 신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동북아 냉전이 촉발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가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던지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적할 것이다.

2. 알타협정과 동북아시아

어느 지역과 시대를 막론하고 국제정치질서는 전쟁에 의해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점에서 동북아 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19세기 말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가 붕괴된 이후 동북아시아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 제국체제로 전환되었다. 대동아공영권 건설을 목표로 한 일본의 제국주의정책은 태평양전쟁의 도발과 미국의 전쟁 개입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 태평양전쟁에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루스벨트의 노력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루스벨트의 외교적 시도는 알타회담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6) 이 점에 관해서는 John L. Gaddis,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p. 31-36; Vladislav Zubok and Constantine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50-51; Vojtech Mastny, *The Cold War and Soviet Insecurity: the Stalin Yea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7-28; Melvyn Leffler, "Inside Enemy Archives: the Cold War Reopened", *Foreign Affairs*, Vol.75, No.4(July/August 1996), p. 133; Parrish and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47: Two Reports", pp. 1-51; Geoffrey Roberts, "Moscow and the Marshall Plan: Politics, Ideology and the Onset of the Cold War, 1947," *Europe-Asia Studies*, Vol.46 (1994), pp. 1371-1386 등을 참조. 마샬 플랜이 미·소 냉전 대결의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이미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Michael B. Petrovich, trans.(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p. 127-128에서 제시된 바 있다.

7) Antonio Varsori, "Reflection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Reviewing the Cold War*, Odd Arne Westad, ed.(London: Frank Cass, 2000), p. 281.

8)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pp. 517, 520.

루스벨트는 전후에도 소련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러한 그의 전략적 발상은 미국 외교에서 소련과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알타협정”을 형성하고 있다.⁹⁾ 소련은 알타협정을 통하여 불세비키혁명 이후 베르사이유체제가 만들어낸 방역지대에 의한 고립상태를 탈피하여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스탈린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의 국가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이 알타회담의 성과를 소련 외교의 빛나는 금자탑으로 여겼다.¹⁰⁾

알타협정 체결 이후 2달만에 루스벨트가 사망하고 트루먼이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그 결과 미국과 소련은 알타협정의 순조로운 이행 여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양국이 알타협정에 근거하여 동북아 지역 전후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본의 항복 직전에 열린 포츠담회담에서 핵심협에 성공한 미국은 소련을 대일전에 참전시키지 않고 조기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¹¹⁾ 이러한 시도는 알타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이 전쟁의 조기 종결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결과 포츠담선언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을 뿐 알타협정의 합의내용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았다.

동북아 냉전은 알타협정에 의해 상징되는 미·소 협조체제가 전후 처리 과정에서 긴장과 군사적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알타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소가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계기

9) Daniel Yergin, *Shattered Pe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New York: Penguin, 1990), pp. 17-68. 예르긴은 “Riga Axioms”과 “Yalta Axiom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이것을 “알타협정”으로 번역했다.

10) Vladislav Zubok, “To Hell with Yalta—Stalin Opts for a New Status Quo”,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Bulletin*, 6-7(1995/1996), p. 24.

11) Marc S. Callicchio, *The Cold War Begins in Asia: American East Asian Policy and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137-138.

로 하여 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동북아지역에 양극적 냉전 구조가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지역과 관련된 알타협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알타협정 중 동북아 냉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아시아 비밀협약은 미·소 양국이 회담 1년 뒤인 1946년 2월 동시에 극비의 합의문서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¹²⁾ 그 내용의 핵심은 독일이 항복하여 유럽에서 전쟁이 끝난 2개월 내지는 3개월 후에 소련이 아시아에서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소련은 아시아에서 1905년 러일전쟁의 패배로 제정 러시아가 잃어버린 이권들을 재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의 대일전 참여 지연으로 만주의 관동군이 일본 본토로 이동하여 결사항전을 벌일 경우 미국은 일본 본토 공격에서 약 1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을 공격하기 3개월 전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해 만주의 관동군을 봉쇄하여 패배시키기를 원했다.¹³⁾ 소련은 당시 24개 사단과 42개 여단을 갖고 있던 일본의 관동군과 싸우기 위하여 최소한 30개 사단을 극동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소련 병력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1천대의 열차가 필요했고, 그 이동 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소련은 독일 항복 후 3개월 후에 실제로 대일전에 참전하게 된다.

대일전 참전의 대가로 소련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에게 빼앗긴 남부 사할린을 되찾고, 쿠릴열도를 합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소련은 중국의 여순항에 해군기지 건설권을 확보하고, 남만주철도와 동청(東淸)철도 사용권 및 대련항 사용권을 포함한 만주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 대신

12) 합의문서의 전문은 Edward R. Stettinius, *Roosevelt and the Russians: The Yalta Conference* (New York: Doubleday, 1949), pp. 351-352를 참조.

13) Louis Morton, “Soviet Intervention in the War with Japan”, *Foreign Affairs*, XL (July 1962), p. 657.

소련은 만주에 대한 국민당의 주권을 인정하고 국민당과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장개석과 사전 논의 없이 중국문제를 합의한 데 대해서는 루즈벨트가 책임지고 장개석을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알타회담에서 스탈린이 아시아에서 확보한 이권들은 쿠릴열도를 제외하면 모든 것들이 1905년 러일전쟁 패배 이전 제정 러시아가 상실했던 것을 되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러일전쟁 패배 이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던 소련이 다시 아시아 무대에 초강대국으로 재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알타협정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유도하여 대평양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군사편의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소련의 영향력 증가를 막기 위해 국민당 정부가 내전을 수습하고 이 지역 세력균형의 안정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카이로선언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것이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개입 없이 장개석 정부가 중국 내전을 수습하고 소련 영향력의 팽창을 막을 수 있는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또한 소련이 장개석 정부와 조약을 체결한다고 할지라도 이 조약이 알타협정에서 미국이 추구한 중국과 소련 사이의 세력균형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스탈린은 중국과 관련된 알타합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만주 등에서 소련의 국익을 관철시키고 미국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었다. 일단 동북아지역에서 알타협정이 보장한 이권들을 확보한 후 중국공산당 지원 여부는 당시 매우 유동적이었던 중국 내전 상황의 전개 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대일전을 위하여 소련군들이 만주 지역에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알타협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여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공산당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주에서 만들 수 있었다. 실제로 스탈린은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그 지역을 장개석에게 넘겨주지 않고 모택동이 장악하도록 허용했다. 그 이후

소련은 만주로 이동하는 많은 중공군 병력에게 무기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중공군 세력의 팽창에 기여했다. 결국 스탈린은 장개석과 모택동을 동시에 소련에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만주로부터 미국을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¹⁴⁾ 이처럼 스탈린은 알타협정을 준수하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만주지역에서 자신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탈린은 대일전 참전 이후 알타협정에 따라서 장개석정부와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알타협정은 일본 점령의 주체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미확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소련은 대일전 참전 직후 알타협조체제의 정신에 기초하여 미국과 합의를 거쳐 문제들을 처리해 나갔다. 일본 항복 직후 미·소가 동북아지역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보여준 협조체제는 알타체제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긴장과 군사적 대결의 냉전체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난 직후인 8월 8일 소련은 알타협정에 따라 대일전에 참전하게 된다. 일본의 항복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알타협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우선 소련은 중국과 우호동맹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알타회담 이후 진행하여 1945년 8월 14일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을 통해 소련은 장개석정부가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대가로 만주에서의 이권을 보장받고 여순항과 대련항의 사용권도 확보했다.

알타협정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한반도 문제는 38선 분할과 관련된 미국의 결정을 소련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잠정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일본 문제와 관련하여 스탈린은 트루먼에게 보낸 8월 16일자 전문에서 쿠릴열도 전체와 일본 본토 홋카이도의 북부를 소련이 점령할 수 있도록 일

14) 이정식, “냉전의 전개과정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유명익편 (서울: 연세대출판부, 1998), pp. 87-8.

반명령 제1호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의했다. 쿠릴열도에 관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스탈린은 트루먼에게 알타비밀협정을 상기시켰고, 홋카이도에 관해서는 소련 내 여론의 압력을 강조했다.¹⁵⁾ 8월 17일 트루먼은 소련이 쿠릴열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동의했지만, 소련의 홋카이도 점령에는 반대하고 일본은 미국의 단독 점령 하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¹⁶⁾

최근 공개된 소련문서에 따르면 1945년 6월 26~27일 스탈린은 군지도자들과 홋카이도 점령문제를 논의했다.¹⁷⁾ 후르시초프를 비롯한 일부 군지도자들은 점령을 지지했지만, 몰로토프는 그러한 소련정책이 알타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스탈린은 이 문제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일전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지시하고 회의를 마쳤다. 미국이 홋카이도 점령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9일 소련 극동군 사령관 바실리예프스키(Alexander M. Vasilevsky)는 홋카이도 점령 준비를 지시하고 있지만, 결국 이 지시는 8월 21일에 정식으로 철회되었다. 다음날 스탈린은 트루먼에게 소련이 일본 본토 점령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는 미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¹⁸⁾ 알타협정에서 확보한 사할린 지역의 경우 소련은 8월 11일 시작된 점령작전이 일본의 완강한 저항으로 일시적인 차질을 빚었지만 8월 20일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¹⁹⁾ 이처럼 소련은 참전 직후 일본 문제와 관련하여도 미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알타체제에 기초

15) Stalin to Truman,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5, Vol. VI, p. 668.

16) Truman to Stalin, 17 August 1945, *FRUS*, 1945, Vol. VI, p. 670.

17) Boris N. Slavinsky, "The Soviet Occupation of the Kuril Islands and the Plans for the Capture of Northern Hokkaido", *Japan Forum*, Vol. 5, No. 1 (April 1993), pp. 97-98.

18) Stalin to Truman, *FRUS*, 1945, Vol. VI, p. 687.

19) Slavinsky, "The Soviet Occupation of the Kuril Islands and the Plans for the Capture of Northern Hokkaido", p. 103.

하여 동북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타체제의 붕괴는 미·소 대결을 통한 동북아 지역 냉전체제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알타체제에서 아시아 지역을 뒷받침하고 있던 기둥들은 중국, 한반도, 일본 등이었다. 이들 기둥이 하나 둘 붕괴되면서 알타협조체제는 무너지게 되었고 동북아 지역에는 냉전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3. 동북아시아 냉전 기원의 분기점

동북아 냉전 기원에 대한 논의는 중국, 한반도, 일본이라는 세 지역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알타협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이후 동북아 지역은 일본군의 철수로 인하여 대부분의 지역이 힘의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고 한반도는 미·소에 의해 분할점령되었다. 또한 만주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중국 내전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일전 참전 직후 소련의 동북아정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탈린은 동북아지역에 대해서 공산혁명의 청사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팽창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냉전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서로 충돌해 알타협정에 기초한 협조체제가 파기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미·소 사이의 대결 구도의 격화는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창출한 조건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생겨난 것일 수도 있다. 미·소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시아 냉전 기원의 분기점이 된 사건들을 밝혀내고 그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북아 냉전체제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을 직접 맞대고 있던 지역은 한반도였다. 알타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신탁통치에 관해서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본의 항복 이후 1945년 12월 양국은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5년간 신탁통치 기간을 거쳐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데 합의했다. 원래 신탁통치는 영국과 중국도 참가하는 4대국 방식이었지만 양국의 참여 거부로 인하여 미·소 양국에 의한 신탁통치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남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점령군 사령관이 협의하기로 하여 한반도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1946과 1947년에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10월 18일 제62차 비밀회담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47년 7월 이미 유럽에서는 미·소 냉전 대결이 격화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에서의 미·소 협상은 유럽의 상황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개된 1945년 9월 20일자 대북한 비밀지령문에서 스탈린은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²⁰⁾ 이것은 스탈린이 미·소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북한 내에 친소련 정권을 이미 수립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알타협조체제는 소련의 북한 점령 직후부터 그 균열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소련과 합의를 찾기 어려워지자 미국은 1948년부터 1950년까지 3년간에 걸쳐 6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원조 계획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²¹⁾ 그 결과 미국은 한국문

20) 전문의 내용과 그 분석에 관해서는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서울: 일조각, 2006), pp. 202-205 참조.

21) "Report of Special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Korea", February 25, 1947, 334.0, Records of Interdepartmental and Intradepartmental Committees, RG 353; *FRUS*, 1947, VI, p. 609. 현지 미군정 당국은 원래 13억불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지만, 그 숫자를 줄여서 약 8억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무성에 보고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Proposed Three-Year Program for the Rehabilitation of South Korea", Hodge to Marshall, 25 February 1947, box 67, Hodge's Office File, RG 338을 참조.

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여 소련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고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데 만족했다.

한반도 전체가 특정 강대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었던 소련에게도 한반도 분단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의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다. 최근 공개된 소련측 자료들은 한국전쟁 직전까지 스탈린이 38선을 미·소 합의에 의해 그어진 국제적 분할선이었고 이러한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있다.²²⁾ 김일성은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38선은 국제정치적 의미를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스탈린은 김일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²³⁾ 소련은 1948년 12월, 미국은 1949년 6월 각각 군대를 한반도로부터 철수시켰다. 이러한 사실은 미·소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급격한 대결 국면을 연출하기보다는 알타체제에 기초하여 한반도 분단을 통하여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스탈린은 한반도 상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지도부가 38선상에서 대규모 국경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은 미·소 합의에 의해 한반도 상에서 통일국가 수립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알타협조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지역에서 미·소간의 냉전이 심화되면서 사라예보와 같이 한반도는 미·소 사이의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폭발성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에 의해 단독으로 점령되었다. 미국은 태평양전

22) 한국외교부 역,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 1949년 8월 27일 및 9월 24일. 특히 9월 24일자 소련공산당 정치국 명의의 지시문은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CWIHP Bulletin* Vol. 5, pp. 7-8.

23) 한국외교부 역,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외교문서』, 1949년 8월 12일.

24) Gromyko to Shtykov, 27 October 1949 in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 4(Spring 1995), pp. 446-447.

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소련에게 일본의 일부를 점령 지역으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련은 전후 군사적으로 점령한 유럽 지역에 자신의 체제와 이념을 강요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 냉전 기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1947년 후반부터 추진된 미국의 대일본점령 정책의 전환이 갖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초기 미국의 대일본 점령정책은 비무장화와 민주화였지만 역코스정책(reverse course)의 추진 이후 일본 경제의 부활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²⁵⁾

역코스정책의 입안자였던 케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적인 군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시설 기반과 고도로 훈련된 기술인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다섯 개밖에 없다고 주장했다.²⁶⁾ 여기에는 미국, 일본, 영국, 서부 유럽국가들, 소련이 포함된다. 다섯 개 중심국가론은 대소봉쇄전략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소련이 이 국가들 중 어느 것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서유럽과 일본을 미국의 동맹권으로 흡수하고 이 지역의 경제부흥을 이룩한다면 소련의 팽창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케난에 의하면 당시 중국은 인구문제, 취약한 산업기반, 원시적 농업조건, 한 세기 동안의 정치적 불안정 등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군사적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²⁷⁾

1947년 말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일본의 재부흥정책은 일본판 마샬플랜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유럽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미·소 냉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패전국에 대한 과도한 보상 요구와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는 지역적 불안정을 증대시키고 소련

25) NSC 13/2, "Recommendation with Respect to United States Policy toward Japan", *FRUS*, 1948, Vol. VI, pp. 875-62.

26)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 (New York: Pantheon, 1967), p. 359.

27) PPS/39, "United States Policy Toward China", 15 September 1948 in Anna K. Nelson, *The State Department Policy Planning Staff Papers*, Vol. 1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1983).

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은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베르사이유체제의 실패에서 얻은 뼈저린 교훈이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해 소련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경제적 부흥과 군사적 대국화는 이 지역에서 소련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중국의 내전이 중국공산세력의 승리로 기울게 되면서 미국은 1949년 여름부터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으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본 문제를 둘러싼 미·소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은 알타협정에 근거한 미·소의 협력정책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의 점령정책 전환에서 촉발된 미·소 사이의 대립 격화는 동북아 냉전 기원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조약을 통해 미국이 소련을 배제한 채 일본과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등장하는 동북아시아의 양극적 냉전 구조는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동북아 냉전의 분기점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적다고 할 수 있다.²⁸⁾

전후 한반도와 일본 문제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던 미·소 대결은 중국 공산혁명을 기점으로 하여 극점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케난의 다섯 개 중심국가론에서 중국이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전의 전개과정이 동북아 냉전 기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타협정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국민당 정부가 중국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있었다. 1945년 8월 14일 알타협정에 따라 소련과 국민당 정부는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국 내전이 공산세력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알타협정에 기초한 미·소 합의사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공산세력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을 때 1949년 6월 모택동은 대소일변도정책을 선언하고 소련이 국민당과 체결한 구조약을 폐기하고 중국공산당과 신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원했다. 이

28) 이 주장에 관해서는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pp. 517, 520 참조.

러한 신조약의 체결은 알타협정이 폐기되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소 냉전 대결이 격화되고 경직된 양극적 구조가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49년 신조약에 의해 알타협정의 근간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조약과 한국전쟁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동북아 냉전의 출발점이 아니라 냉전의 도래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소련과의 신조약 체결을 통하여 모택동은 중국 내부의 반혁명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생 중국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과 침략을 막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모택동은 신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국공산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이전에 유소기를 소련에 파견했다. 1949년 7월 11일 유소기와와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중국공산정부가 수립된 직후 모택동이 중국을 방문하여 구조약의 갱신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²⁹⁾ 이 당시 스탈린의 입장은 구조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경우 미·소 합의에 의한 알타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조약을 보완하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공산 혁명의 성공은 단순히 구조약을 갱신하는 차원을 넘어서 전세계적 세력균형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세력균형을 특정 시점에서 실제로 국가들 사이의 힘이 분포된 상태로 이해한다면, 중국이 친서방 혹은 친소련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세력균형에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대결 구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모택동의 대소일변도 정책의 선언은 소련에게 유리하게 세력균형이 변화되고 있고, 제2차 세계 대전 중 장개석의 중국을 중심으로 전후 아시아에서 국제정치질서를 재편하려던 루스벨트의 전략적 구상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했다.

중국공산혁명에 대한 미국의 대응전략은 중국의 대소일변도정책을 저지

하기 위해 미·중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중국과 소련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췌기전략이었다. 스탈린이 중국의 친미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두 국가 사이에 췌기를 박는 것을 췌기전략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중소분리 정책은 일종의 역췌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은 미국이 실제로 이 전략을 추구했다는 좋은 예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췌기전략은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이 대만문제와 맞물리면서 이 전략 수행을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미국이 공산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원조와 같은 유인책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화당의 일부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한 친대만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트루먼 행정부는 이 수단을 쓸 수 없었다. 미국내의 친대만세력들은 미국이 중국내전 당시에 장개석을 충분히 지원했다면 중국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산화 이후에 오히려 모택동을 원조하려는 발상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러한 비난에 맞서 애치슨은 『중국백서』를 발간하고 장개석의 몰락은 미국의 충분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정권의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지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

또 트루먼 행정부의 췌기전략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용인하고 대만의 유엔안보리 의석을 박탈하여 그 자리에 중국을 앉히는 것을 지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친대만세력들 뿐만 아니라 트루먼으로서도 시행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미국이 안고 있었던 이러한 췌기전략의 딜레마는 중국 공산화 이후 미국에 퍼지기 시작한 맥카시즘과 함께 극점에 이르게 된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췌기전략은 애치슨과 리스크를 비롯한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수사적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 구체적 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목표와 수단을 갖지 못함으로써 실패했다.

중국공산혁명에 대한 미국의 대책이 표류하고 있을 때 1949년 말 모택동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신조약 체결을 위해 스탈린과 협상에 들어가게 된

29)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67-8.

다.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과 모택동은 첫 번째 회담을 갖게 된다.³⁰⁾ 이 회담에서 모택동은 1949년 7월에 유소기가 스탈린을 만나 구조약 갱신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구조약을 완전히 폐기하고 신조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구조약의 구체적 조항들을 형식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조약을 변경할 것을 제의했다. 예를 들어 구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소련의 여순항 사용권과 소련군 주둔권의 경우 이 권리조항은 조약에 형식적으로 그대로 두면서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소련이 실질적으로 병력을 철수하는 형식을 취하자는 것이었다. 결국 중소조약이 여순항에 소련군 주둔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소련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스탈린의 설명이었다. 스탈린은 만주철도 이권에 관련된 문제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스탈린은 자신이 이러한 방식을 제시하게 된 이유를 알타회담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는 중소조약은 알타협정의 일환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알타협정은 미국과 영국의 합의 하에 체결된 것임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약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신을 포함한 소련 권력층 내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서 그는 소련이 구조약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변경시킬 경우 미국과 영국이 쿠릴열도와 사할린 등과 같은 알타협정의 다른 조항들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그는 구조약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스탈린은 모택동이 자신의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안들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모택동은 신생중국을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효율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순과 만주철도와 관련된 구조약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스탈린은 소련이 중국으로부터 소련군을 철수하려는 것은 유사시에 중국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공산주의자로서 우방국의 영토인 외국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소련이 중국 영토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면 그것은 미국과 영국에게 동경과 홍콩에 각각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구실을 줄 것이라고 스탈린은 말했다. 나아가 그는 여순으로부터 소련군의 철수는 공산중국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 점에서 장개석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중국 내의 민족부르조아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소련군의 철수가 중국의 국가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소련군은 여순에 2년, 5년, 10년, 혹은 심지어 20년까지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소련이 중국으로부터 발을 빼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알타협정 때문에 구조약의 골격을 유지하자는 스탈린의 제안에 대해 모택동은 자신이 알타협정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스탈린에게 새로운 중소동맹조약 체결 문제가 미·소관계와 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모택동은 이 문제는 중·소 모두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고, 구조약과 알타협정의 연관성 문제는 보다 더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택동은 구조약이 현시점에서 변경되어서는 안되고 여순으로부터 소련군의 철수를 서둘러서도 안된다는 것이 스탈린과의 논의 결과 이미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조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주은래를 모스크바로 불러야 하느냐는 모택동의 질문에 그 문제는 주은래가 아니라 모택동 자신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스탈린의 이러한 반응은 구조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갱신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30) 이 회담 기록은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December 16, 1949, *CWIHP Bulletin* Vol. 5, pp. 5-7을 참조. 소련측에서는 몰로토프와 비진스키 등이 스탈린과 함께 이 회담에 참석했다. 이하 이 회담에 관한 내용은 다른 출처를 인용하지 않는 한 모두 이 기록에 기초하고 있다.

결정되지 않았고 그 문제가 결정된 이후에 조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주은래를 모스크바로 불러야 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것으로 첫번째 회답에서 중소조약 문제에 관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논의는 끝났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제1차 회답에 관한 분석은 스탈린이 미국과의 합의 하에 알타협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체결된 중국과의 구조약을 폐기하고 신조약 체결을 주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스탈린은 구조약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제1차 회답의 입장을 변경하여 신조약을 체결하기로 한 소련의 변화된 입장을 모택동에게 1950년 1월 2일 저녁 정식으로 통보한다.³¹⁾ 스탈린은 몰로토프와 미코얀을 모택동의 숙소로 보내 이러한 결정을 알려주고 주은래가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1월 20일까지 모스크바로 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신조약 체결을 위한 모든 조치는 1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바로 이 1월말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 승인 의사를 통보하는 것과 일치한다. 모택동은 스탈린이 신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그날 밤 북경에 전문으로 긴급히 알렸다.

몰로토프를 통하여 소련의 신조약 체결 결정을 통보한 후 스탈린은 1월 3일 모택동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이러한 결정을 재차 통보해 주면서 신조약의 대체적인 골격에 관해서 설명했다.³²⁾ 신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구조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고, 외몽고의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여순과 대련 등의 지위는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고 그 구체적인 문제는 주은래가 도착한 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1950년 2월 14일 정식으로 조인된 신조약에서는 만주철도와 여순항의 관할권을 일본과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즉시 또는 늦어도 1952년까지는 중국에게 돌려주기로 양국이 합의하고 여순항의 소련군도 그때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련 문제는 일본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다시 고려하기로 하고 그 사이에 대련의

관할권은 즉시 중국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여순과 만주철도의 조차 기간이 구조약의 30년에서 이렇게 단축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1950년 1월 20일 주은래가 모스크바에 도착한 후 1월 22일 스탈린과 모택동은 다시 회담을 갖고 신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된다.³³⁾ 스탈린은 구조약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신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재차 통보했다. 이에 대해 모택동은 신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알타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탈린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스탈린은 이제 알타협정을 완전히 폐기처분하여 없애버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스탈린은 신조약 체결이 알타협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결정이 중·소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소련은 지금부터 미국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공산혁명에 뒤이어 체결된 중소동맹조약은 알타협정의 파기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의 잠재적 적국을 일본으로 명시함으로써 미·소 대결의 격화와 함께 뚜렷한 양극적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동북아 냉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조약을 통해 알타협정이 파기됨과 동시에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북아 냉전은 유럽과 달리 냉전 초기 열전으로 비화되었다. 중국과 신조약의 중요한 골격을 마무리 짓는 1950년 1월 22일의 회담 직전에 스탈린은 북한의 스티코프소련대사로부터 1950년 1월 17일 김일성이 남침의 승인 여부를 타진했다는 전문을 1월 19일 접수했다. 그 이전에도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알타협정을 파기하는 공산중국과의 신조약 체결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38선은 미국과 합의에 의해 그어진 양국 사이의 세력분할선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지 않았다. 신조약 체결이 결정되자마자 스탈린은 1950년 1

31) Goncharov, et. al., *ibid.*, p. 93.

32) *Ibid.*, p. 95.

33) 이 회담 기록은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16 December 1949, *CWHP Bulletin* Vol. 5, pp. 7-9를 참조.

월 30일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탈린이 중국과 신조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에서의 알타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전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4. 결 론

중국공산혁명과 한국전쟁에 의해 촉발되고 심화된 동북아 냉전체제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경직된 양극적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 제7함대를 동원하여 대만해협을 봉쇄시킴으로써 중국 내전에 다시 개입하여 두 개의 중국정책을 취하게 된다. 또한 미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 소련과 중국을 배제한 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은 경직된 양극체제로 발전하게 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성립은 중소 신조약 체결과 한국전쟁을 통해 알타협정을 파기한 소련의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 역시 알타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동북아지역 냉전체제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직후 미국은 한국, 대만, 필리핀 등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 냉전 구조는 다자주의가 아닌 쌍무적 조약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생존과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미·소 대결에 편승해 나가는 중국과 북한의 냉전국가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은 신조약 체결이 알타협정의 파기와 미·소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 블록으로 갈라진 전후 세계에서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대소일변도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 공산혁

명의 성공 이후 북한 역시 38선을 넘는 남침은 알타협정의 정신에 기초한 미·소 사이의 잠정적인 국제적 합의를 어기는 것이었다. 중국과 북한의 요구에 직면하여 스탈린은 동북아 지역에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략적 상황과 이들 냉전국가의 혁명적 열기를 역이용하여 미국과의 대결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정책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게 된다.³⁴⁾ 그 결과 냉전 성립과 전개과정에서 유럽과 달리 동북아 지역은 열전을 냉전 성립 단계부터 경험하게 된다.

동북아 냉전 기원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 냉전 질서의 재조정이 다자적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 미국이 중국 내전에 다시 개입한 이후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데탕트와 함께 1971년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에 가입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해빙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1990년 초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북핵 위기는 동북아 지역의 냉전 질서를 평화적 질서로 전환시키는 데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의가 구체화될 때 동북아 질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동북아 냉전을 열전으로 비화시킨 한국전쟁은 미·소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이 지역의 국지전은 언제든지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국전쟁 이후 20세기 후반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은 “50년 장기간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다.³⁵⁾ 20세기 전반기 동북아는 전쟁의 시대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34) 김영호,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서울: 두레, 1998), p. 153.

35) “장기간 평화”의 개념은 다음에서 인용된 것이다. John Louis Gaddis, *The Long Pea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215-45; John Louis Gaddis, “In Defense of Particular Generalization: Rewriting Cold War History, Rethink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ridges and Boundaries*, Colin Elman and Miriam Fendius Elman, eds. (Cambridge: MIT Press, 2001), pp. 315-6.

한국전쟁으로 점철된 전쟁의 역사와 20세기 후반부의 장기간 평화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물론 한반도 분단의 지속, 양안문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영토분쟁 등에서 보는 것처럼 20세기 후반 동북아의 장기간 평화시키는 이상적 형태의 영구평화를 실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기간 동안 동북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정치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 동북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20세기 후반부터 지속되는 장기간 평화의 시대를 유지하고 공동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결과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21세기를 열어가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08. 3. 17, 심사수정일 : 2008. 5. 28,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냉전, 동북아냉전, 알타협정, 마샬플랜, 역코스정책, 썬기전략, 중소동맹, 한국전쟁, 샌프란시스코협정

<ABSTRACT>

A Study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Kim, Young-ho

The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is regarded as a phenomenon subordinate to that in Europe. This trend remains unchanged in the post-Cold War period. In contrast to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 European countries, the Cold War still persists in the Northeast Asia. The legacies of Cold War involve the Korean division, the Taiwan Strait issue, and territorial dispute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e socialist political system does not change in China, Vietnam, and North Korea.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does not directly lead to the end of the Cold War in Asia. The failur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Europe and Asia regarding the end of the Cold War derives from the lack of the study 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The study of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is the precondition for judging whether the Cold War has ended and helps us to devise specific policies to ameliorate Cold War confrontation.

The article is an attempt to trace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with specific reference to recently declassified Soviet and Chinese documents. The Cold War in the region started when the regional order was polarized with the development of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events were the watershed in the Cold War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events may be imposed by outside powers. They may be ignited by the proactive policies of the region. It is important to explain the interactive process leading the onset of the Cold War in the region. This article seeks to explai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region with specific reference to the Yalta Agreement. The collapse of the Yalta Accord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for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region. The success of the Chinese communist revolution and the Korean War began to destroy the main pillars of the Yalta Agreement. The San Francisco treaty was only the final legal expression of the collapse of the Yalta system.

Key Words : Cold War, Cold War in the Northeast Asia, Yalta Agreement, Marshall Plan, Reverse Course, Wedge Strategy, Sino-Soviet Alliance, The Korean War, San Francisco Treaty